

RBT

Reading Build-up Training

비문화로 빈칸을 푼다

Orbi_01

1.

“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나 자신과 남들에게 상황을 드러낸다”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우리가 연루되어 있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드러내는 글쓰기는 상황에 대해 중립적인 묘사를 하는 데 그치고 마는 글쓰기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루되어 있는 상황의 의미를 ‘나는 불행하다’라는 문장으로 기술했다고 해보자. 이 문장은 나 자신의 상황을 그저 묘사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不)’이라는 ‘부정’이 알려주는 것처럼 나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고 비판을 수행하므로써 나의 상황을 초극하려는 하나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즉 “말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 행동으로서의 말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판단(“불행하다”)을 포함하므로 “말을 한다는 것은 권총을 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세계를 기술하는 모든 문장은 불가치적인 묘사 속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세계를 바꾸려는 비판적 판단문 속에서만 세계의 참된 면모를 드러낸다. “우리는 세계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_____ 사람들의 편이며, 세계는 오직 그것을 바꾸려는 기도 앞에서만 그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세계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예화될 수 있다. “우리가 장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무엇을 박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이다. 마찬가지로 못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벽에 못질을 할 때이며, 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도 거기에 못을 박을 때이다.” 장도리나 못과 마찬가지로 세계 또한 우리의 행위의 대상이 될 때 그 참된 모습을 가장 잘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네이버캐스트, 양가주망/ 서동욱(서강대 철학과 교수)

- ① wanting to be in the world
- ② wanting the world
- ③ changing the world
- ④ united with the world
- ⑤ harmonized with the world

2.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 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_____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2017학년도 수능 국어역역 33~36번 문제

- ① element that can decompose fiber
- ② element that cannot decompose fiber
- ③ element that can decompose glucose
- ④ element that can decompose non-fiber
- ⑤ element that can decompose energy source

3.

“내 세 번째 격률은 언제나 운명보다도 나를 아끼며, _____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외부의 것들에 관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이 격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 그러나 모든 사물을 이러한 각도에서 보는 버릇을 가지게 되는 데는 오랜 훈련과 명상을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옛날에 운명의 지배를 벗어나 여러가지 고통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신들과 더불어 행복을 거룰 수 있었던 철학자들의 비밀도 주로 여기에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데카르트, 『방법서설 · 성찰』, 최명관 옮김, 창, 2010, p.89-p.90.

- ① my desires rather than the order of the world
- ② the order of the world rather than my desires
- ③ objects themselves
- ④ a predetermined destiny
- ⑤ philosophers' secrets

4.

국가가 개인의 최고 소득구간에 대하여 과도한 누진세나 부유세를 책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가가 소득의 대부분을 징수해간다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안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갈지도 모릅니다. 결국 국가총생산이 줄어들고, 복지에 사용할 세금 수입도 줄어들겠지요. 안 그래도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실질 세금이 0에 가까워서 세금 한 톨 내지 않고 있고, _____이(가) 이미 국가 전체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때 그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의무는 전혀 안 지려고 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만큼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캐스트 / 세금-

- ① the whole nation
- ② foreigners who are not granted citizenship
- ③ a handful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 ④ executive branch
- ⑤ all the members of a nation

5.

베이컨이 보기에 당시까지의 학문은 현학과 권위에 지나치게 얽매어, 학자의 자만과 인간 사고의 함정,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과거의 학문이 빠져있는 옳지 않은 전통과의 단절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여기서 나온 것이 유명한 “마음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인간 사고의 함정에 대한 파괴이다. 베이컨 말하는 4가지 우상의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다. 베이컨은 18세기 경험론자들과 달리 인간은 백지상태(tabula rasa)로 태어난다고 믿지 않았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평면이 아니라 왜곡된 거울과 같다. 그래서 왜곡된 거울에 비친 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_____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의 기원이 되는 인간 본성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르고, 이를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우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정과잉이나 의지박약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함을 좋아하는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오류들이 바로 그러한 우상의 예이다.

네이버캐스트, 프랜시스 베이컨 / 송하석(아주대 철학과 교수)

- ① have a wrong understanding of the world
- ② view the world as it is
- ③ see the authentic image of the world
- ④ look at the world merely with rationality
- ⑤ precisely see the world

6.

이에 반해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매우 만족스러운, 사변적 비판의 일관성 있는 사유 방식의 확인이 시작된다. 곧, 사변적 비판은 경험의 대상들 그 자체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주관을 단지 현상들로 보지만, 그럼에도 현상들의 근거에 사물들 그 자체를 두도록, 그래서 모든 초감성적인 것을 가공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의 개념을 내용에 있어서 공허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실천 이성(실천 이성)은 이제 독자적으로, 다시 말해 사변 이성과 협의함이 없이, 인과성 범주의 초감성적 대상, 곧 자유에다 _____을 부여한다(비록 이 자유가 오로지 실천적 사용을 위한 실천적 개념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저 사변 이성에서는 한낱 생각될 수 있던 것이 [실천 이성에서는] 하나의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동시에, 사고하는 주체[주관]조차도 내적 직관에서 그 자신에게는 한낱 현상일 뿐이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기이한 사변적 비판의 주장 또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완전한 확인을 받는다. 그래서 전자가 이 명제를 결코 증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런 확인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

『순수 이성 비판』 / 칸트

- ① emptiness
- ② unreality
- ③ substantiality
- ④ freedom
- ⑤ gap

7.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한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지니는 모든 것들-무엇을 먹고 살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타고난 본성이 그러할 뿐, 이후 사람이 갖추게 되는 성품은 교육과 양육 방식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발적 복종의 일차적 근거가 _____이란 사실을 발견한다. 그것은 마치 말이 길드는 과정과 같다. 말에 재갈을 채우면 처음에는 재갈을 물어뜯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 재갈을 갖고 장난질한다. 말에 안장을 없으면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항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장비와 장신구를 뽐낸다.

엔티엔 드 라 보에시, 『자발적 복종』, 심영길·목수정 옮김, 생각정원, 81쪽

- ① essence
- ② individual tastes
- ③ nature
- ④ habits
- ⑤ fear

8.

기억은 언제나 _____(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기억을 떠올려 보더라도, 과거의 기억은 선명한 하나의 테두리로 그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억력이 떨어져서 생긴 결과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꼽자면, 현존하지 않는 과거가 기억을 중첩시켜 드러내기 때문이다. 시간은 기억의 해상도를 떨어트린다. 과거 사건의 가장자리에는 기억의 잔상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억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게 하는 상상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기억의 선명도는 불가피하게 과거를 왜곡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서 상상을 통해 기억의 선명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과거의 기억은 일그러진다. 기억의 또렷한 경계를 얻은 대가로 경계 내부가 접히면서 주름을 낳는다. 언제든 접힌 기억의 반발력이 고정되어 있는 경계를 깨트릴 수 있다. 기억의 경계가 또렷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 기억은 복수의 양태로, 즉 흐릿한 잔상들의 무리로 존재한다. 시인은 탁월하게 기억의 _____(성)을 명기하고 있다. 반면 하이데거는 이 점을 소홀하게 여긴 것 같다. 그는 기억의 성을 분별하기는 했어도(참고로 그는 기억을 여성명사로 간주한다), 수(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기억의 복수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이데거 철학 내에서 기억의 복수성, 중첩성, 접힘 현상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일단 앞에서 살펴본 '기억의 시간'을 회상해 보자. 그 시간은 밤과 낮이 교차하는 때, 망각이 극에 달하는 전환의 순간, 망설임과 주저가 정조로 깔릴 수밖에 없는 경계의 시간이다. 제 3의 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가 바로 기억의 시간이다. 실체화 내지 주체화될 수 없는 현존재도 마찬가지다. 그에 따르면, "현-존재는 전회'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기억과 상상의 에토스/ 김동규(연세대학교)

- ① indifference
- ② unchanged truth
- ③ vividness
- ④ a singular form
- ⑤ a plural form

9.

"이성적 인간과 직관적 인간이 나란히 서 있는 시대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적 선구자로 불리는 니체의 말이다. 이성적인 사람은 세계를 관찰하고,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논증하려 한다면, 직관적인 사람은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이 세계를 은유로 감싼다.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개념과 논증에 익숙한 사람은 대체로 직관적 비유를 두려워하고, 세계를 창조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추상적 개념을 경멸한다. 이처럼 과학과 철학, 학문과 문학 사이에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가로놓여 있다. 이 경계선은 한때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거품이 걷히고 난 지금 과학과 철학의 벽은 붕괴는커녕 더욱 굳건해진 듯하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_____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지적 사기' 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책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과학과 철학에 관한 예리한 분석도 전문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아닌 하나의 낱말이다. '사기' . 끝 간 데를 모를 정도로 성공적인 현대 과학과 기술의 오만이 이 낱말에 짙게 배어있다. 물론 프랑스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에 얽박한 '과학성' 의 외피를 입히느라 애매모호한 과학의 전문용어를 남용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기이다. 만약 그들이 공허하고 진부한 내용을 감추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과학의 권위에 기대었다면, 그것은 분명 사기행위이다. 그러나 소칼이 과학적 논증의 단두대에서 가차 없이 목을 날리고 있는 라캉. 크리스테바. 보드리야르. 들뢰즈 같은 프랑스 사상가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하나뿐인 진리, 하나뿐인 이성, 하나뿐인 세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포스트모던 조건에서 단지 진리, 이성, 세계의 '의미'를 반성하면서 사유할 뿐이다. 물론 과학의 전제조건 자체에 커다란 물음표를 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몇몇의 과학개념들을 과학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과 경계 침범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소칼은 이에 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논증을 의도하지 않은 글과 사상을 놓고 논증이 결여되어있다는 점만 흠잡고 있다. 그러나 그가 문제 삼는 텍스트들조차도 찬찬히 읽으면 프랑스 사상가들의 관심, 사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이성이 절대화될수록 인간의 삶의 의미는 왜곡된다는 비판적 우려도 그 중 하나다.

-[중앙일보] [논쟁 서평]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 ① the abuse of science
- ② the overuse of abstract terms
- ③ the distortion of reality
- ④ the use of philosophical terms that we don't use in real life
- ⑤ remarks like a dreamer

10.

국제적으로 독일은 산업혁명을 선도한 영국의 맨체스터 정신, 이를 승계한 미국의 자본주의적 이기주의와,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주장한 소련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었고, 이와 연관된 경제적, 정치적 개인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상업주의, 산업주의, 기술지상주의, 물질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파시즘이 혼재된 채 주장되고 있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하이데거는 “_____”에 대하여 묻고 있다. 이런 점은 그가 훔덜린의 시 <<게르마니엔>>을 해석하면서, 시 안에 묘사되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묻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그는 훔덜린의 시 속의 “우리들”이 1801년의 독일인인지, 1934년의 독일인인지, 더 나아가 1980년의 독일인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독일 대학의 자기주장』에서, “역사적-정신적 민족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직도, 그리고 다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그의 역사적 임무를 성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1929년에 씌어진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질문한다.”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이 시기 하이데거의 핵심어들은, “퇴화, 허무주의, 퇴락, 뿌리에 대한 필요성, 민족정신, 결단성, 정신적 변화, 희생, 갱신, 독일을 구원하는 사명의 완수, 도래적 시간에 대한 강조” 등이다. 이 단어들을 통해 하이데거는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기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작품『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화정책, 현대기술에 대한 그의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체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체제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최상욱(강남대학교)

- ① Germany's Nazism
- ② Germany's democracy
- ③ German's identity
- ④ existence and time
- ⑤ modern technology

11.

테크놀로지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 우리의 신체적인 표출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까지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의 진화가 있었다. 이 과정을 압축하면 사람들은 생명체가 단세포동물에서 바다동물로, 육지동물로, 척추동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마치 천천히 돌아가는 영화 화면을 들여다보듯 볼 수 있게 된다. 마치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손이 빚어낸 것처럼 동물의 몸은 갈수록 세련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몸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 바깥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진화는 주변 세계에 영향을 주고 물질은 인체의 확장이 되었으며 테크놀로지는 세계를 포괄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진화는 무한정한 놀이 공간을 얻게 되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주변 환경에 갇혀 있지만 인간은 _____. 즉 인간은 자신의 도구를 통해 세계를 포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의 테크놀로지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 사용되는 로봇의 손과 팔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확장된 영역이다. 인간의 손을 연장한 기계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일부가 되고 통신망은 전 세계에 뻗어 있고 전자두뇌는 가까운 행성 주위를 돌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고 생명 진화의 일환이며 역사를 만들고 행동하는 인간의 몸짓이다.

-2010학년도 숙명여대 모의논술, 제시문<나>

- ① are locked up in the environment
- ② adapted perfectly to the circumstances
- ③ are no longer exploited by the environment
- ④ subordinated environment to them
- ⑤ are dominating the animals

12.

남자는 평생 동안 서로를 적대하는 경쟁 환경에 놓인다. 주류 스포츠는 대개 외나무다리 앞에 선 남자 대 남자의 사투다. 이 승자독식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자의 영광만큼이나 고통을 인내하려 애쓰는 패자의 절망에 열광한다. 스포츠맨십은 기만이다. 상대를 제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에서 낭만은 관객만의 몫이다. 맥주를 곁들여 경기를 관람하며 동지애를 다진 직장 남성들은 곧 같은 처지로 내몰릴 운명이다. 동지애는 승진의 길목에서 갈라선다. 한쪽이 패배한 밤에는 남성 연대도 침묵한다. 혼자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다면 상대는 십중팔구 같은 만큼 취한 남성일 것이다. 그런 날이면 평소 마음이 끌리던 여성의 얼굴이 떠오를까? 그렇다면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더 뛰어나고 더 매력적인 남성. 삼각관계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모든 멜로의 단골소재가 된다. 남자 주인공의 적대 세력이 여자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정 자체로 반전이다. 남성을 위협하는 적은 언제나 남성이다. 한 남성이 많은 것을 쟁취했다면 나머지 남성들은 그만큼을 빼앗겼다는 뜻이다.

-한겨레신문, [야! 한국 사회] 택시의 적은 택시 / 손아람

- ① The enemy of man is woman
- ② The resources of society are limited
- ③ All men are constantly experiencing forms of loss
- ④ Men should band together
- ⑤ Men should learn from women

13.

창조주의 다른 이름은 '설계자'입니다. 창조론적 신화들은 세계와 인간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외부 지성'을 상정합니다. 인간이 제 손으로 자기를 만들고 세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인간을 만든 존재는 세계 바깥에 따로 있다는 생각이 창조신화의 상상력이고 사유방식이죠. 요즘은 '창조론(creationism)'이라는 구식 명칭 대신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세계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설계가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는 것이 지적 설계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자, 특히 진화론자라면 이런 설계이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겠죠. 리처드 도킨스를 보세요.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 모든 지성, 모든 창조성, 모든 설계가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거나 간접적 산물이라 생각한다. 설계는 _____."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이버캐스트 / 신화와 과학의 격돌

- ① occurred before evolution did
- ② represents the omnipotence of God
- ③ verifies the existence of God
- ④ does not precede evolution
- ⑤ brought about evolution

14.

자본주의 경제는 무한히 반복되는 확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를 온전히 생산에 재투자한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는 '수단-목적 합리성'으로, 이것은 최선의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고 이를 다시 수단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소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유용성과 효용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성(聖)의 세계, 즉 초월성이나 정서, 도덕을 몰아낸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유용한 사물이 되고, 인간의 관계도 사물의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에 대한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사물들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성장 체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것과 소통하는 체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권태와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노동을 하는 순간만은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권태와 우울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 순간에 자신도 하나의 유용한 사물로 축소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잃어버린 내면성을 되찾고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즉 목적을 위해 잉여를 질서 정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무질서하게 소비해야 한다. 바타유는 이를 '무조건적 소모'라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가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잉여를 소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상실한 내면성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소모'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소모를 위해서 인간은 _____을(를) 벗어난 환몽(幻夢)의 세계를 특정의 시·공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전략을 택한다.

-EBS 수능특강 '국어'

- ① unproductivity
- ② unconditional expenditure
- ③ utility
- ④ selfishness
- ⑤ individual will

15.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적이 없고, 또 넘어서는 수도 없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재현할 뿐이다.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_____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며 어느 정도는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 받는 자와 처지를 바꾸어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사회계열), 제시문<다>

- ① the result of what others have sensed
- ② the result of what we ourselves have sensed
- ③ the pain of others
- ④ our emotional scars from the past
- ⑤ empathy for others

16.

행함과 놔둠의 통일은 실천(Praxis) 뿐 아니라 이론(Theorie)과 관련해서도 중요시되는 그곳, 즉 인간적인 자기규정(Selbstbestimmung)이 문제시되는 바로 그곳에서 자주 간과되고 있다. 자기규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를 규정되도록 놔둘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화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얹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데거는 후기에 이르러 점점 더 분명히 '놔둠(Lassen)'에 강세를 두고 이것을 읽고 있다. 칸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양하고 극단적으로 '자기(sich)'에 강세를 두고 이것을 읽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문구를 '자기'와 '놔둠'에 동일한 강세를 두고 읽어 내고자 한다. 이로서 내가 보기에 전통 안에서 자주 간과되고 있는 하나의 ____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하지만 오직 동시에 매체의 사용 속에서, 상대방과의 교환 속에서, 대상을 다루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동기들을 재수용하면서,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대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동기들을 재수용하면서 하나의 규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에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자기규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규정의 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즉 자신이 허락한 관계들 속으로 그 자신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할 때이다.

-자기를 규정되도록 놔둠/ M.젤(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박일태 번역

- ① superiority
- ② self-regulation
- ③ intactness
- ④ ego
- ⑤ balance

17.

최근 일본 경제를 이끄는 핫 트렌드는 '윤리적 소비'다. 상품이 만들어지는 이면까지 고려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사원을 고용 정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 혹사시킨 일본 선술집 체인 '와타미'는 이 사실이 드러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폐기물로 만든 가방이 3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렸다. 일본의 가장 잘나가는 백화점인 이세탄백화점 본점에는 '글로벌 녹색' 공간이 특설매장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물건들을 모아 판매한다는 것이 이 매장의 목적이다. 이제 ethical이라는 단어를 경제학에서는 '생산자의 노동조건이나 지구 환경을 생각해 물건을 사는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있다. 소비를 통해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그야말로 착한 소비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 위와 같이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하는 기업보다는 최대한 공익에 신경 쓰는 기업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을 찾는 '윤리적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이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올해 수능에 연계되는 ebs교재인 수능특강 국어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사회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소비자의 의구심을 일으켜 진짜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소개한다. 가격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친환경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비즉각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개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게 기업이 스스로 공익에 관련된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인증제등의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_____이(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는 유인이라는 것을 늘어나는 윤리적 소비자들이 보여주어 이를 기업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앞으로는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 '윤리적 소비' 뉴트렌드/ 송태현

- ① the image of a corporation
- ② consumers' perception of the corporation
- ③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
- ④ price incentives
- ⑤ social support

18.

과연 이성과 과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도르노 (T.W.Adorno)와 호르크하이머(M.Horkheimer)는 이러한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한 철학자들이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근거지로 1930년대 비판철학이란 학파를 형성한 그들은 『계몽의 변증법』과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여 근대에 당혹한 세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비판주의자들은 근대 역사의 병리적 전개 과정의 근원을 밝히려 했다. 이들은 근대 이후 계몽의 역사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성의 발전이 _____임을 포착했다. 근대의 역사는 이성의 포괄적 역할 중에서 목적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eason)만이 비대해지고, 이성의 또 다른 기능, 예컨대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반성적 차원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 이성주의가 추구하였던 본래의 역사적 목적이 부식되어 결국 근대 계몽의 역사는 목적을 상실한 맹목의 구렁텅이에 매몰되어버렸다. 이성은 이제 광기를 심판할 수 없다. 이성은 광기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근대는 광적인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도구적 이성만이 존재하는 가공할 만한 공포와 맹목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듯 가장 효율적으로 살육할 수 있는 집단살인 공장이 현대과학의 도움으로 아우슈비츠에 건설되었다. 물론 근대 역사는 죽음의 공장 아우슈비츠만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환상을 제공하는 꿈의 공장도 할리우드에서 건설되었다. 그러나 아도르노의 눈에 비친 할리우드는 결코 천진한 환상의 낙원이 아니다. 거기서도 이성은 철저히 기형화되었다. 인간의 말초적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산업사회의 상처 받은 인간들에게 환각을 제공하는 문화산업에 이성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해주었다. 이제 그들은 그 문화산업의 도구일 때에만 애무를 받으며 커진다.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과 모순을 포착하고 그 극복을 추구하는 이성의 또 다른 역할은 감각을 유혹하는 강렬한 자극 앞에서 마비되고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렸다. 비판철학의 또 다른 대변자인 마르쿠제(H.Marcuse)는 문화산업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 쪼그라든 이성을 단세포적인 1차원적 인간으로 묘사했다.

비판철학자들은 근대 세계의 역설이 도구적 이성의 기형적 발전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게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초기 계몽 시대처럼 이성 자체의 포괄적 기능을 회복하면 반계몽적으로 치달는 계몽의 역설과 그것이 수반하는 시대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진정 이성 자체는 인간의 해방을 보장하는가? 데카르트가 추구한 바와 같이 투명성과 보편성을 지니는 진리가 이성의 비판 정신에 의해 확보된다면 계몽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진리 청바지 -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일까] / 박정하(성균관대 교수)

- ① showing an abnormal image
- ② challenging the divine authority
- ③ absolute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humankind
- ④ being valueless in terms of instrumental means
- ⑤ heading towards the incompetent direction, excluding science

19.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좋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은 요소가 결핍되면 지극한 복에 흠집이 나기도 한다. 행복에는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운이 행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행복은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가, 아니면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나는가? 신들이 인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행복 또한 신들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 신들의 선물이 아니고 모종의 배움이나 익힘을 통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 안의 신적인 것들 중 으뜸일 것이다.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_____ .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김재홍-감상진-이창우 옮김, 이제이박스, p.27

- ① they are excellent souls themselves
- ② they connect the happiness of now to the future
- ③ they only possess external happiness
- ④ the happiness of their parents are their own happiness
- ⑤ they cannot do things to pursue happiness

20.

셸링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가장 큰 계시(höchste Offenbarung)”이고 인과의 필연성에 얽매어 있지 않는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내에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셸링은 “인간의 신으로부터의 내적인 독립”을 포착한다. 물론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언제든지 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한편으로 “가장 큰 계시”이지만, 그러나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악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악의 장본인(Urheberschaft des Bösen)”이 되고 악으로의 유혹자이며 “정반대의 신(ein umgekehrter Gott)”이 되는 것이다. 셸링에게서는 인간 이외의 다른 악마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셸링과 달리, 즉 인간만이 “악의 장본인”이라거나 악마라는 주장과는 다른 포인트를 목격하는데, 그것은 자연재해라거나 재앙, 잔인, 악령과 같은 악의 다른 근원도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악이 인간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셸링의 지적)과 동시에 악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 _____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악이 탄생된다거나 인간만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즉자-존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의 근원과 “선악의 피안” 및 악의 존재에 대한 대응책/ 윤병렬(홍익대학교)

- ① existence mediated by humans
- ② the prime mover of evil
- ③ a totally opposite kind of God
- ④ evil itself
- ⑤ the biggest revelation

<정답지>

1번	2번	3번	4번
③	①	①	③
5번	6번	7번	8번
①	③	④	⑤
9번	10번	11번	12번
①	③	④	②
13번	14번	15번	16번
④	③	②	⑤
17번	18번	19번	20번
④	①	⑤	④

RBT